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다.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르게 서야 진정한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 윤환봉 선생이 1994년 5월 각계의 여망을 응축해 쓴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이다. 그가 뼈와 살을 갈아 넣은 창립선언문에는 5월 단체는 물론 광주 5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새삼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을 떠올린 이유는 최근 일부 5·18기념단체의 난맥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기념단체 출범 1년여 만에 횡령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내부 감사에서 공금 횡령과 후원금 무단 사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갓 출범한 단체에서 ‘유령 부채’ 15억 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급기야 감사위원들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지경이 됐다. 5·18부상자회에서도 기부금 착복 의혹이 제기되자 황일봉 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특정 회원이 부상자회 기부금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구멍가게도 아닌 기념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집행부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황 회장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자신을 징계하려던 부상자회 상별위원들을 직위 해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별위원

안타까운 5·18 공법단체

들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워낙 고소·고발, 소송건이 많아 일일이 짚기도 힘들 정도다. 굳이 위안을 삼자면 모두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다. 뼈아픈 대목은 5월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로부터 공법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얻었으나 정작 시민 지지를 잃고 있는 것이다.

각종 횡령, 비리 의혹으로 ‘내홍’

5월 공법단체들은 최근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특전사 예비역 단체)와 함께 발표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은 광주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전사는 광주항쟁 무력진압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계엄군의 일원이다. 이들과 함께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궤변 수준이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활동과 희생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한 과정이었고 활동이었다. 즉,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활동을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43년 전 상황에서 상부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다음이 오늘날까지 오랜 정신적·육체적 아픔으로 접철해 왔던 점에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5·18유족회, 5·18기념재단 등이 “사죄 표현조차 없이 만들어진 ‘공동선언문’부터 폐기하는 것이 사죄의 첫걸음”이라고 공분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응축한 대응이기도 했다. 공동선언문으로 촉발된 광주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5·18 행사위에서 5·18 공법

단체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사태를 낳았다. 자칫 내년 5·18 행사도 5월 단체가 빠진 반쪽 행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와 여당, 보수매체가 광주를 향해 해묵은 매카시즘 공세를 펼 때 별도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그들의 편에 섰다. 이들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윤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빨갱이 추방’이라고 율가미를 씌웠다. 신군부가 ‘5·18을 빨갱이 폭동으로’ 낙인찍은 그 후유증이 지금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됐다. 두 단체는 보훈부 관계자들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공동 보조를 맞췄다고 한다. 5·18 단체장을 지낸 한 원로는 “애초 우려했던 5월의 관계화”라며 혀를 찼다.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어지러운 5월 단체의 행보를 보는 시민들은 명치끝이 아프다. 5월에 대한 끊임 없는 왜곡·폄훼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5월 단체의 내부 붕괴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도 버거운 상황임에도 말이다. 5·18 진상조사위가 활동 종료시한 3개월을 남기고 내용을 겪고 있음에도 광주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5월 단체의 혼돈과 무관하지 않다.

늦었지만 다시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5월을 바로 세우는 길은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에 오롯이 담겨 있다.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5월을 더럽히고 자신 입들을 욱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자신 입들과 7천만 겨레 앞에 웃음을 여미고 섰습니다.”

은편칼럼



김창균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지나 지구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올 여름은 긴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떨쳤다. 그래도 ‘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고 하였다. 때마, 쓰르라미 울음이 사그라진 자리에 귀뚜라미와 여치 울음이 가득하니, 추석이 코앞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명절은 변모하고 있다. 귀성(歸省) 전쟁으로 대변되던 가족주의적 문화가 퇴색하며, 아무리 없이 살아도 친지 간의 유대와 정을 강조했던 예전과 달리 자신만의 삶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합쳐 6일 연휴를 보장하였지만 충분한 휴식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명목을 두어 전통적 명절의 의미 계승보다는 소비 진작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죽하면 ‘조상 덕 본 사람은 해외여행 가도, 조상 덕 본 사람은 차레 지낸다’는 자조적 말조차 생겨났을까 싶다.

한편으로 개인주의 가치관에 기초한 지구 반대편에서는 ‘Chosen Family’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 자리

가야물 감야물(加也勿 減也勿)

잡은 번역어가 없어 ‘비혈연(비친족) 가족’으로도 일컬으나 ‘선택된 가족’이 일반적일 듯하다. 아직 낯선 용어지만 지난 도쿄 올림픽 폐막식에서 리나 사와야마가 팝의 거장 엘튼 존과 함께 부른 노래가 ‘Chosen Family’였다. 가사를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관계를 맺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유전자나 성(姓)을 꼭 공유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물론 이 노래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만큼 보수적인 일본에서 이 노래가 불리었다는 것은 가족이 핏줄보다도 공감과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혈연과 법률혼을 토대로 한 기존 가족 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들때 늘 곁에 있어 주는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랑해 주는 이도 가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개념에 ‘선택’을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핏줄과 법률혼의 여집합도 인정하여, 정부로부터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혈연이나 인척이 아닌 친구나 이웃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통한 사례를 들면, 본래 사람의 반쪽(동반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반려(伴侶)가 애완(愛玩·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을 대신하

고 있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되어 당당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결혼, 부부, 아이, 혈연 등의 요소가 꼭 전제되어야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이미 블랙스톤(Amy Blackstone)의 말이 떠오른다.

전통의 추석은 봄 여름에 흘린 땀을 거름 삼아 키운 곡식을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함께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날이었다. 가족주의로 제한하면 오늘날 추석은 과거와 같은 강한 유대감을 시리진 채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교류 단절에 따른 정서적 빈칸을 방조하는 날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을 정서적 안정을 함께 나누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발전적 계승의 여지가 있다.

‘가야물 감야물(加也勿 減也勿)’이라 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뜻에는 한가위의 풍성한 나눔과 배움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어렵던 옛날에도 이날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들에게도 포식의 날’(박경리의 토지)이었으니, 가족에서 나아가 마을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마음 나눔을 강조했던 아름다운 풍속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은 서로 나누는 정담 속에서 그간의 응어리도 풀고, 가족의 외연을 확장하여 두루 주위를 살피는 시간이다. 혈연이나 법률혼이 아니어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선택된 가족’과 함께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서 정서적 연대를 갈구하는 이를 찾아 화합과 사랑을 도모하는 것이 한가위 정신이다.

보름달을 따라 월산동에 간다

‘아가야 나오나라 달맞이 가자’. 그곳 수박 반쪽을 담은 동네는 달맞이하기 맞춤형 곳. 산등성이에 서면 둥근 달 위에 선 것 같이 멋진 한 폭의 그림처럼 가슴이 동동 뜬다. 월산동 월산에서 달을 바라본다. 아무래도 추석은 시간이 밤이고 밤의 주인공은 보름달 만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주월과 진월을 지난 월산동 보름달은 짝 차서 불이 터질 것 같은 달이다.

유년 추석은 단연 달밤이 최고였다. 어른들은 풍성하게 음식과 떡, 과일을 차려놓고 웃음이 넘쳐났고, 청춘들은 동네 앞으로 나와 강강술래로 신명이 났다. 야밤 출입을 엄금했던 당시, 어린 조무래기들은 수박 서리로 분주했고, 유일하게 추석날 밤만은 예외여서 짙은 남녀들은 여기저기 연애하기 바빴다. 아니 달빛은 큐피드의 화살인지 누구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밤이었다. 추석 보름달은 무던 누구라도 한편의 러브스토리를 제공해준 중매쟁이 달이었다.

동시에 녀석은 무척 과묵한 달이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데, 그 많은 일들을 보고도 모른 척, 빙그레 만장을 부리고 있는 저 월산동의 달은 조금은 뻔뻔스러운 달이다.

저 익을 대로 농익은 둥근 달. 추석 달은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은 달이다. 달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순한 어린 양이 된다. 어머니가 보고픈 이들은 슬며시 창가로 다가선다. 아파트에

서, 병원과 요양원에서도, 외로운 원룸과 군부대 초소에서 우린 모두 어머니를 바라보는 달바라기 달맞이 꽃이 되는 날이 추석날 밤이다.

한가위 보름달은 화창한 달이다. 그날만은 노랗게 분장한 달을 보는 동안, 목은 슬픔도 지워지고, 분노도 율화도 시나브로 가라앉았다. 달빛을 맞는 순간 우리는 최면이 걸린 낙낙한 아저씨가 되고 풍요로운 행이 되고 자애로운 이모가 되었다. 또 길 잃은 짐승들을 어머니 품으로 안내하고, 산새들은 깊은 잠이 들게 하고, 일순간 죄자는 이도 눈물 흘리게 하는 미술사 같은 달이다.

혹여, 이 추석날 밤에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달 없는 짙짙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만인의 연인이자 친구 없이 말이다. 삭막한 가슴을 정화해주는 저 달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삭막한 세상, 미움과 전쟁으로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

시끄럽고 말 많은 세상에 지리 과묵한 달, 저런 친구 하나 있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절로 힘이 난다. 하늘의 달이 땅으로 내려와 달이 된 곳 월산동. 간혹 뻔뻔스럽게 시치미를 떼지만 그래도 가볍지 않고 묵직한 친구, 불이 터질 것 같은 녀석, 만식의 달, 유술쟁이, 중매쟁이, 어머니를 닮은, 화창한 달을 만나러 월산동으로 가자. 그 보름달을 따라 그 추석 달을 만나러 월산동으로 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이 신나는 날은.

社說

경제살리기 등 민생 행복 환영한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틀날인 3일까지 모두 6일간 이어진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긴 연휴를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도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경제살리기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연휴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는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소외 계층 돌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거듭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통령이 나서 연휴를 반납하다시피 하고 민생 행보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쳐서 민들의 생활이 팍팍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만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휴에도 제1 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놓고 민생을 살피기 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극한 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야가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팬심을 자극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의 정치 혐오만 키우게 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들여다 보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계기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배고픈’ 연휴 보내야 하나

올해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에 달한다. 공휴일인 국군의 날(10월 1일)과 개천절(3일) 사이에 긴 2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배고픈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내 무료 급식소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현재 무료 급식소는 북구 12곳과 광산구 5곳 등 30곳이다. 광주에서 복지관과 교회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내 무료 급식 대상자는 북구 1014명과 서구 1000명 등 모두 4166명이다.

광주시는 1년 중 300일 식사를 기준으로 한해 무료 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내 무료 급식소가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것은 연간 무료 급식 예산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무료 급식 관련 예산은

50억여 원으로, 광주시가 80%, 구청이 나머지 20%를 분담한다. 무료 급식 단가는 지난해 9월 1000원 인상한 1인당 4000원이다. 올해 추석 연휴와 같이 6일간 이어지면 예산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6일 분의 무료 급식이 불가능 하다. 남구만 유일하게 추석 연휴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광주 서구가족센터와 서구 금호종합복지관, 북구 우산종합복지관 등은 대안으로 무료 급식 대상자들에게 대체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적게는 이를 분에서 많게는 나흘 분에 해당한다. 연휴 기간 대안서의 음식점들도 휴업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먹기조차 여의치 않다.

추석 명절 속담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을 즐겨 한다. 우리 모두 이웃한 취약계층이 배를 굶지 않고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온정과 나눔을 베풀었으면 한다.

無等鼓

최근 정치권의 ‘침소봉대’(針小棒大)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작은 일을 크게 불러 떠벌리는 것을 침소봉대라고 한다. 정치권의 침소봉대는 정치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부풀려 확대 해석해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우선 흥분도 장군의 육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국방부와 여당은 ‘자유시 참변 연관’ ‘소련 공산당 기밀’이라는 점을 과장해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폈다. 하지만 당시 독립군과 소련의 공동의 적은 일본이었고, 힘을 합쳐 일본과의 싸움을 해야 했다는 역사적 상황이나 마천가지다. 이를 이나 배경 등 흥 장군의

선 투표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주권 천발 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마저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거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을 때, 국민의힘이 명운을 걸고 반대했던 제도이다. 똑같은 제도인데, 이제 일본이었고, 힘을 합쳐 일본과의 싸움을 해야 했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나 마천가지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야당에서

는 여당과 정부가 소수의 사례를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에 제갈 물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이슈를 만들어 선점하는 정치적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작은 일이나 소수 사례를 놓고 마치 뭐라도 일어날 것처럼 부풀려 국민들을 선동한다면 ‘삼류 정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요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침소봉대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80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기고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달이 떠 있다. 어께 너머로 뜬 달이 슬그머니 내 어깨를 감싸준다.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달밤이다.

내가 그를 보는 건지 그가 나를 보는 건지, 말지도 가깝지도 않은, 말이 통하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저 달, 아니 달님.

추석에 뜨는 달은 처용의 바람둥이 달보다 부자지간을 이어주는 메밀꽃 흐드러진 봉평의 은은한 달 같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슬픈 정음사의 달이리기도 다 김환기의 그림 속 향아리 같은 만석의 달이다.

추석 달은 ‘달달 무슨 달’ 짙짙한 달이든,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달이고, ‘달아, 달아! 둥근 달아’, 민요가 절로 울려퍼지는 흥겨워지는 달이다. 이럴 때면 윤오영의 달밭처럼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단출한 무정 김치에 농주 한 사발 차려놓고 말없이 달을 빗 삼아 출출함을 달래고 싶어진다.

광주의 달동네, 월산동 수박등에서 달은 코앞이다.